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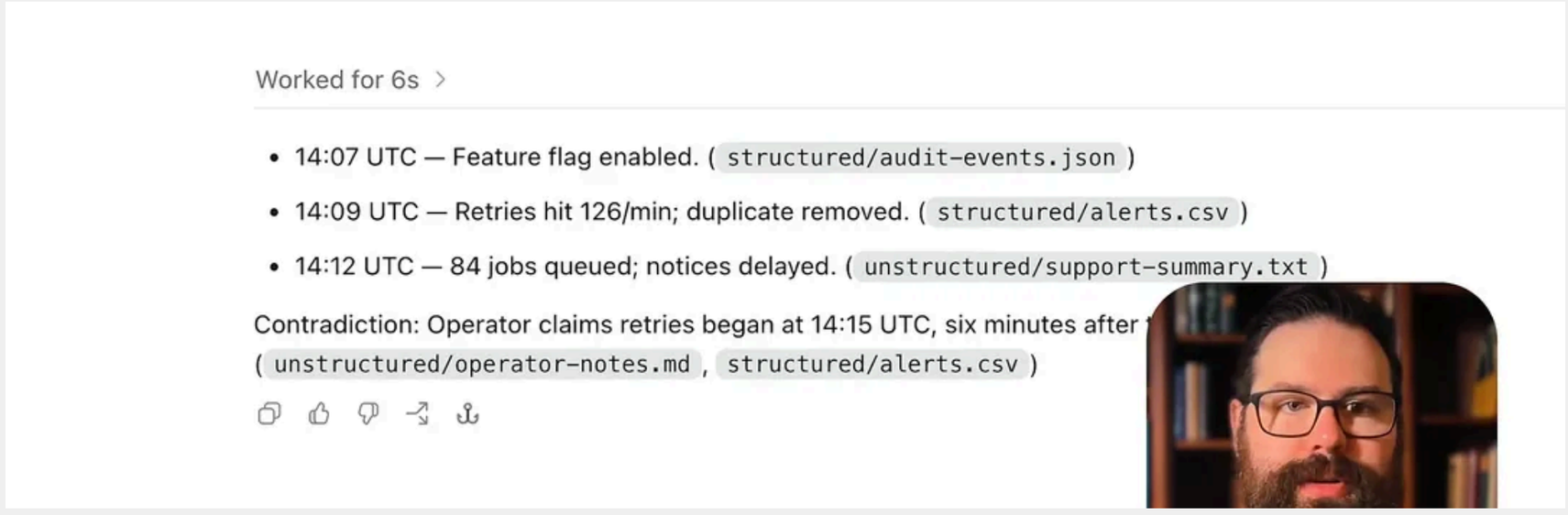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54 호 |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 오늘의 AI

AI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오픈AI가 Codex 고속 모드 Ultrafast로 사내 장애 조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인 사례를 공개했다. 엔지니어들은 답이 빨라지자 주의를 나누지 않고 더 많은 일을 맡기게 됐다고 밝혔다.



AI ·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오픈AI 엔지니어들이 장애가 터졌을 때 기본으로 켜는 도구는 Codex의 고속 모드 Ultrafast다. 오픈AI는 10월 26일 자사 기술을 사내에서 쓰는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OpenAI on OpenAI에서 Ultrafast가 장애 조사 시간을 몇 시간에서 몇 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보안 설계를 맡은 AJ 트보예비치(AJ Trbojevic) 기술 스태프는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모아 정리하고 판단 근거를 붙이는 보안 조사에 예전에는 한두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은 10~15분이면 끝나고, 때로는 거의 실시간"이라고 말했다.

장애 대응을 주로 지휘하는 에런 프리엘(Aaron Friel) 기술 스태프는 사고가 나면 슬랙에 대응 채널을 열고 Codex에게 그 채널을 지켜보며 조사하고 들어오는 질문에 답하라고 맡긴다. 그는 "장애마다 무엇이 잘못됐을 수 있는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맞는 건초 더미에서 맞는 바늘을 찾는 것이 채널에 모인 사람들의 핵심 일"이라며 "Ultrafast로는 그 건초 더미를 사실상 한꺼번에 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메탈이 확인한 오픈AI 공개 영상에서 프리엘은 시스템이 멈추는 순간을 조립 라인의 비상 정지 버튼이 눌린 상황에 빗댔고, Codex가 근본 원인을 찾으며 자신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에이전트가 명령을 실행하고 도구를 쓰게 하는 코드를 만드는 코어 에이전트팀의 애덤 페리(Adam Perry)와 사얀 시소디야(Sayan Sisodiya)도 보안 사고 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페리는 "예전에는 Codex에 무언가를 조사해 달라고 맡기고 기다리기엔 느리다는 걸 알아서 나도 동시에 직접 들여다봤다"며 "이제 Codex가 충분히 빨라 주의를 나누지 않고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소디야는 로그만이 아니라 슬랙까지 Codex로 훑어 의심스러운 변경을 언급한 대화나 비슷한 증상을 말한 글을 찾는다.

5초씩 생각하며 클릭하던 예전 모델이 너무 느려 양식 작성 같은 일을 맡기지 않았지만, 최신 모델의 컴퓨터 사용 능력이 좋아진 뒤로는 브라우저 클릭을 통째로 넘긴다고 했다. 위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모델의 정확도만이 아니라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사내 증언이 보여 준다.



김수진 교수, K-GX 대신 페트병 순환 제안

메탈은 오픈AI가 GPT-6.1 Sol용 Ultrafast를 출시한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오픈AI API 가이드에 따르면 Ultrafast는 API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 등급으로 GPT-6 Astra와 GPT-6.1 Sol에 열려 있으며, 회사는 속도가 더 높은 비용을 정당화할 때 쓰라고 권한다. 도구 호출이 잦은 에이전트 앱에는 웹소켓 연결을 강하게 권장하는데, 연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네트워크 부담이 속도 이득을 깎아 먹기 때문이다. 기본 분당 토큰 한도는 최상위 Grow 등급 기준 GPT-6.1 Sol이 4,000만, GPT-6 Astra가 500만이다. 장애 대응처럼 1분이 비용인 현장에서 오픈AI가 스스로 이 등급을 기본값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례의 요지다.

이번 세대에서 새로 붙은 것은 아마존 생태계와의 연결이다. Bee를 Alexa+에 이으면 휴대전화를 꺼내지 않고 알렉사에게 회의 요약이나 할 일, 친구가 추천한 책 제목을 물을 수 있다. 아마존닷컴과 이으면 대화에서 언급한 물건을 잊기 전에 아마존 홈페이지와 Bee 앱에 상품 추천으로 띄운다. 발표문은 사겠다고 말해 둔 주방 세제를 잊지 않게 해 주는 장면을 예로 들었다. 기기를 사면 대화 요약과 14일치 기억을 추가 비용 없이 쓰고, 무제한 요약과 Alexa+·아마존닷컴 연동, 할 일 추천, 개인 채팅 비서, 데스크톱 앱은 유료 구독 Bee Pro에 묶였다. 신규 고객에게는 Bee Pro 30일 무료 체험을 준다. 보도에 따르면 이 구독 구조가 하드웨어보다 큰 사업이며, 일상 대화가 아마존 소매 사업으로 곧장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생활 문제에 대해 아마존은 Bee Private Compute라는 보안 구조를 내세웠다. 대화는 격리된 처리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된 뒤 삭제되고, 오디오는 저장하지 않으며, 아마존을 포함해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화 기록은 기기가 만들고 관리하는 키로 암호화되고, 사용자는 기록과 요약을 언제든 지울 수 있다. Bee Eclipse로 통화를 정리할 때는 녹음을 시작할 때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라는 안내가 뜬다. 알렉사와 연결한 경우 에코 기기가 음성 ID로 사용자를 알아본 뒤에만 Bee 정보를 알려 준다.

직접 써 본 사람의 평가는 기대를 넘었다. 오랫동안 AI 웨어러블을 지켜봐 온 IT 칼럼니스트 M.G. 시글러(M.G. Siegler)는 "사람들이 AI와 웨어러블로 무엇이 오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미 여기 와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그는 목소리를 인식하는 간단한 초기 설정만 거치자 Bee가 따로 입력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바라는 것까지 알아냈다고 전했다. 호텔 바에서 주문하지 않은 음료값이 청구됐을 때는 Bee가 바텐더와의 대화

비즈니스

아마존, AI 웨어러블 Bee Frontier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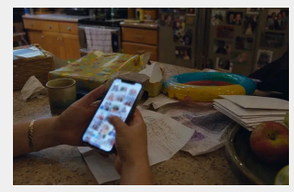
아마존이 대화를 듣고 요약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주는 AI 웨어러블 Bee Frontier를 내놨다. 손목에 차거나 옷에 집게로 다는 이 기기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주변 대화를 처리해 요약과 할 일, 알림, 통찰로 바꾼다. 휴대전화 뒷면에 자석으로 붙이는 신용카드 크기의 Bee Eclipse도 함께 공

오늘 지면

1 AI 오픈AI, Ultrafast 장애 대응 사례 공개
2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3 기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4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5 비즈니스 아마존, AI 웨어러블 Bee Frontier 출시
6 비즈니스 앤스로픽, 나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S-1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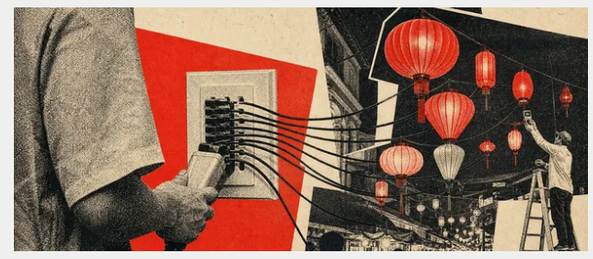
아일랜즈 AI 에이전트, 언론사에 투고 제안



마리사 메이어, AI 비서 Dazzle 출시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구글 리서치가 동남아시아 12개 언어로 대형언어모델(LLM)을 시험하는 벤치마크 DEEPSEA를 공개했다. 10월 19일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에 따르면 프런티어 모델은 저자원 언어에서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았지만, 70억~80억 파라미터급 오픈 웨이트 모델은 저자원 언어 묶음에서 수학 점수가 영어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모델이 목표 언어보다 영어를 거쳐 생각할 때 더 잘 푼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다. 구글 리서치는 10월 26일 X에서 EMN

▶ 2면에 계속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오픈AI가 화면을 읽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조작하는 중형 모델 GPT-6.1 Terra를 10월 26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표준 API 요금은 전작 GPT-5.6 Terra와 상위 모델 GPT-6.1 Sol의 절반으로 내렸다. 오픈AI는 발표문에서 GPT-6.1 Terra를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하며 정밀한 시각 추론과 컴퓨터 사용, 더 자연스러운 글쓰기를 한 모델에 묶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ChatGPT Work와 Codex의 Plus·Pro·Enterprise·Edu 사용자 전원에게 배포됐고, 개발자는 API에서 gpt-6.1-terra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

오픈AI가 내세운 근거는 비용 대비 성능이다. 건축 도면을 3D 모델로 옮기거나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 컷씩 검토해 복원팀용 타임코드 기록을 만드는 전문 업무 벤치마크 Agents'

▶ 2면에 계속

기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구글이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기업 이그나이트 에너지 액세스(Ignite Energy Access)와 3년 동안 협력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온실가스 배출을 16만 tCO2e 넘게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그나이트가 2023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보급한 태양광 기기는 370만 대다. 구글은 위성 영상과 건물 데이터, 경로 최적화 모형으로 전력망 밖 가구를 찾아 기기를 배달하는 물류 문제를 함께 풀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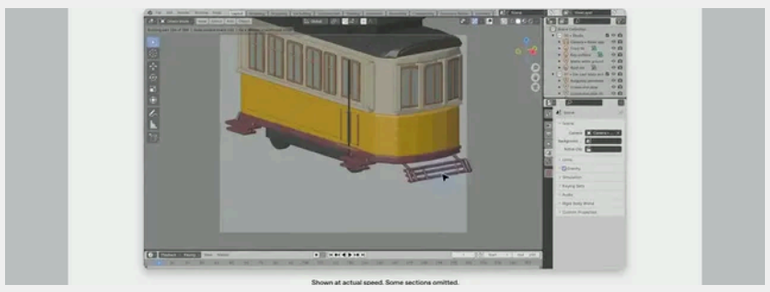
출발점은 전력 공백의 크기다. 구글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절반 가까운 6억 명 이상이 전기 없이 산다. 이 가구들은 조명을 등유와 양초에 기대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구글은 오프그리드 태양광을 이 공백을 메우는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GPT-6.1 Terra 출시



1 오픈AI는 10월 26일 컴퓨터 사용과 시각 추론을 강화한 GPT-6.1 Terra를 ChatGPT Work·Codex·API에 공개했다.

2 Agents' Last Exam에서 GPT-5.6 Terra보다 15%포인트 높은 점수를 약 3분의 1 비용으로 냈고, Terminal-Bench 4.0 점수는 21.5%에서 50.3%로 올랐다.

3 어려운 질문의 사실 오류율은 낮은 추론에서 53.6%에서 16.7%로 떨어졌고, 사이버보안 항목은 준비 프레임워크의 Critical 기준에 해당했다.

데스크톱 앱을 여러 단계로 다루는 능력을 재는 OSWorld 2.1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중간 추론의 GPT-6.1 Terra가 GPT-5.6 Terra의 최고 점수를 넘었고, 과제당 비용은 그 일부에 그쳤다. 시각 추론 벤치마크 MMMU-Pro에서는 모든 추론 설정에서 전작을 앞섰고, GPT-6 Astra와 GPT-6.1 Sol의 점수에 근접했다. 오픈AI가 예로 든 쓰임새는 들어오는 청구서를 읽고 회계 소프트웨어에 내용을 입력하는 일처럼 양이 많고 반복되는 작업이다.

사실 오류도 크게 줄었다. 오류를 유도하도록 설계한 오픈AI 내부 벤치마크에서 낮은 추론 강도의 오류율은 GPT-5.6 Terra의 53.6%에서 16.7%로 37%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 최대 추론에서는 18%포인트 내려간 4.3%로, GPT-6 Astra와 GPT-6.1 Sol 수준에 가까워졌다. 오픈AI는 "올해 모델의 환각과 사실 오류를 줄이는 데 크게 투자했다"고 밝혔다.

코딩 성적은 전작의 두 배를 넘었다. 명령줄에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재는 Terminal-Bench 4.0에서 최대 추론의 GPT-6.1 Terra는 과제의 50.3%를 풀었고, GPT-5.6 Terra가 공개한 점수는 21.5%였다. 독립 평가 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는 X에서 이 벤치마크에서 약 20점이 올라 최대 추론에서 GPT-6.1 Sol에 맞설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 기관은 GPT-6.1 Terra가 GPT-5.6 이후 첫 Terra급 모델이며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더 똑똑하다"고 밝혔다. 다만 오픈AI는 가장 복잡한 코딩 과제에는 여전히 GPT-6.1 Sol과 GPT-6 Astra가 낫다고 선을 그었다. 과학 연구 과제를 코드로 수행하는 Terminal-Bench-Science 0.1에서는 최대 추론의 GPT-6.1 Terra가 GPT-6.1 Sol을 더 낮은 비용으로 앞섰고, 추정 비용 5분의 1 미만으로 Opus 5.5와 5점 이내 차이를 보였다.

◀ 1면에서 계속

기후

구글, 아프리카 오프그리드 태양광 협력 성과 발표



1 구글은 이그나이트 에너지 액세스와의 협력이 올해 상반기 16만 tCO2e 이상의 배출 감축을 가능하게 했다고 10월 26일 추정했다.

2 이그나이트는 2023년부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태양광 기기 370만 대를 보급했다.

3 두 회사는 다음 단계로 전기 조리를 위한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를 모델링하고 있다.

협력은 구글의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프로그램(Startups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통해 이뤄졌다. 구글 연구자와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가 이그나이트와 100회 넘는 자문 세션을 가졌다. 글을 쓴 어윈 부트불(Irwin Boutboul) 구글 지속가능발전 스타트업 총괄과 야샤 월린(Yasha Wallin) 지속가능성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풀어야 할 과제를 셋으로 정리했다. 주소가 없는 가구의 위치를 찾는 일, 험한 농촌 지형을 뚫고 하드웨어를 배달하는 일, 위성 영상의 한계 속에서 이미 설치된 기기를 원격으로 파악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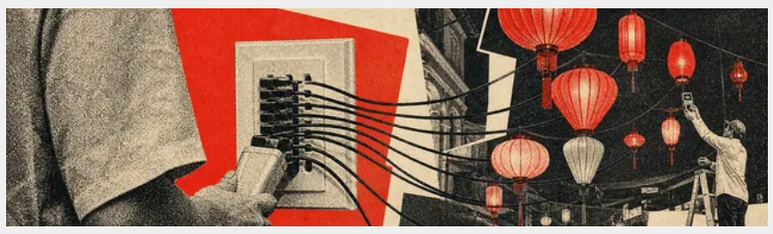
첫 과제는 지도에 없는 집을 찾는 것이다. 공동 팀은 위성 영상과 구글의 오픈 빌딩(Open Buildings) 데이터셋을 경로 알고리즘과 묶었다. 농촌 마을은 대개 지도에 오르지 않은 흙길로만 이어져 있어, 구글 연구진은 그 길을 식별해 실제 배달 경로 제약에 반영하는 지리공간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 구글의 운영과학(OR) 모형은 이그나이트의 공급망 전체를 다룬다. 운송비, 배달 경로, 차량 적재량, 재고 보관비를 저울질해 중앙 창고와 지역 소형 거점을 어디에 둘지 계산한다.

둘째 과제는 하늘에서 설치 현황을 세는 일이다. 사하라 이남의 소형 태양광은 보통 지붕 위 패널 한 장이라 일반 위성 영상에서는 1픽셀 남짓으로 잡힌다. 구글 연구진은 과학용 제미나이(Gemini for Science)로 컴퓨터 비전 모형을 만들고, 이그나이트가 제공한 드론 실측 영상으로 미세 조정하고 있다. 정밀도와 재현율을 끌어올리려고 코드 변형 수천 개를 시험 중이다. 이미 전기가 들어온 마을을 알아야 아직 남은 마을로 자원을 돌릴 수 있어서다.

◀ 1면에서 계속

AI

구글, 동남아 12개 언어 벤치마크 DEEPSEA 공개



1 구글 리서치 연구진 4명이 10월 19일 동남아 12개 언어·5개 과제로 LLM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DEEPSEA 논문을 공개하고 데이터와 코드를 오픈소스로 풀었다.

2 Gemini 3.7 Flash는 수학 추론에서 영어 99.2점, 저자원 언어 96.4점을 받았고, Qwen2.5 7B는 93.2점에서 36.2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3 모델은 목표 언어보다 영어로 생각하거나 영어 요약을 거칠 때 더 높은 점수를 냈고, 라오어 토큰 수는 GPT-5 토크나이저에서 영어의 7배 가까이 됐다.

과제는 다섯 가지다. 수학 추론(MGSM), 생물·화학·물리 과학 추론(IndoMMLU), 지문 속 답 찾기(XQuAD), 영어 기사를 목표 언어로 요약하는 과제(CrossSum), 영어에서 목표 언어로 옮기는 번역(WMT24++)이다. 기존 데이터에 해당 언어가 없으면 전문 원어민 번역가에게 맡겼다. 저자원 8개 언어 평가 세트만 해도 질의응답 9,520건, 번역 7,976건, 과학 추론 5,880건이다. 메탈이 확인한 논문 부록에 따르면 자동 번역 품질 평가(Auto-MQM) 평균은 0.86으로 연구진이 전문가 수준으로 정한 0.80을 넘었고, 원어민이 문장의 5~10%를 뽑아 본 정확도는 93.93%였다.

성적표의 맨 위는 Gemini 3.7 Flash였다. 수학 추론에서 영어 99.2점, 저자원 언어 96.4점을 받아 차이가 2.8점에 그쳤다. 과학 추론은 86.5점에서 86.1점으로 거의 그대로였다. Claude Sonnet 5도 수학에서 영어 98.8점, 저자원 95.4점으로 바짝 붙었다. 오픈 웨이트 가운데 가장 높은 SEA-LION v4 27B는 저자원 수학에서 83.8점이었다. 다만 이 벤치마크를 만든 곳이 구글 리서치이고 1위가 구글 모델이라는 점은 독자가 함께 알아야 할 사실이다. 연구진은 평가를 온도 0의 제로샷으로 고정해 결과가 매번 같게 나오도록 했다.

격차가 벌어진 곳은 작은 모델이다. Qwen2.5 7B는 수학 추론에서 영어 93.2점, 고자원 78.3점, 저자원 36.2점으로 60% 넘게 떨어졌다. Llama 3.1 8B는 과학 추론 저자원 점수가 24.5점이었다. 연구진은 "작은 언어 모델은 목표 언어에 특화되지 않는 한 다국어 능력에서 뒤처진다"고 썼다. 같은 Gemma 3라도 27B는 저자원 과학 추론 71.5점, 12B는 63.6점으로 크기가 클수록 언어 간 전이가 강해졌다. GPT-5.6 Luna는 질의응답 F1이 저자원 65.8점으로 다른 과제보다 크게 낮았는데, 연구진은 지문 속 문구를 그대로 뽑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말을 바꿔 답한 탓이라고 분석했다.

비즈니스

아마존, AI 웨어러블 Bee Frontier 출시

아마존이 대화를 듣고 요약과 할 일 목록을 만드는 손목형 AI 기기 Bee Frontier와 휴대전화 부착형 Bee Eclipse를 내놨다. Alexa+와 아마존닷컴 연동이 붙으면서 대화가 쇼핑 추천으로 이어진다.



1 아마존이 손목이나 옷에 다는 AI 웨어러블 Bee Frontier와 휴대전화에 자석으로 붙이는 Bee Eclipse를 공개했다.

2 Bee는 대화를 실시간 처리해 요약·할 일·알림을 만들고, 새로 Alexa+와 아마존닷컴에 연결돼 언급한 물건을 상품 추천으로 띄운다.

3 아마존은 오디오를 저장하지 않는 Bee Private Compute 구조를 내세웠고, 사용자 평가는 성능에 놀라면서도 감시 우려를 함께 짚었다.

아마존이 대화를 듣고 요약과 할 일 목록을 만들어 주는 AI 웨어러블 Bee Frontier를 내놨다. 손목에 차거나 옷에 집게로 다는 이 기기는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주변 대화를 처리해 요약과 할 일, 알림, 통찰로 바꾼다. 휴대전화 뒷면에 자석으로 붙이는 신용카드 크기의 Bee Eclipse도 함께 공개됐다. 아마존은 발표문에서 "우리의 하루는 중요한 정보로 가득하지만, 그 순간에 집중하면서 모든 것을 붙잡고 있기는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Bee가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기기 자체는 단순하다. 메탈이 확인한 아마존 발표문에 따르면 Bee Frontier는 IP67 방수, 최대 7일 배터리, USB-C 충전을 갖췄고, 소음을 걸러 내는 마이크 2개로 붐비는 식당이나 개방형 사무실에서도 필요한 말만 골라 듣는다. 색상은 라벤더, 세이지, 오닉스 세 가지다. 화면도 스피커도 없고, 버튼 하나로 켜고 끄며, 켜져 있을 때는 표시등이 들어온다. 일정 시간 소리가 없으면 5분, 15분처럼 정해 둔 간격 뒤에 저절로 꺼지게 할 수 있다. Bee Eclipse는 한 번 충전으로 21일 넘게 쓴다.

쓰임새는 앱 쪽에 몰려 있다. Bee는 대화와 연결된 앱에서 맥락을 모아 모바일 앱과 새 데스크톱 앱에 요약을 띄우고, 강의나 돌봄 계획, 브레인스토밍처럼 상황별 양식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지메일, 구글 캘린더,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과 연결하면 회의가 끝난 뒤 실행 항목을 뽑고 후속 이메일 초안을 쓰고 캘린더 초대를 만든다. 애플 헬스킷이나 사진과도 이어 붙일 수 있다. 반복되는 주제를 찾아 개인 목표와 행동을 제안하는 기능도 있다.

비즈니스

앤스로픽, 나스닥 상장 증권신고서 S-1 제출

앤스로픽이 상반기 매출 163억 달러와 2분기 영업이익 10억 달러를 담은 S-1 증권신고서를 SEC에 냈다. 장기공익신탁이 이사회 과반을, 공동창업자 7명이 의결권 50.1%를 쥐는 지배구조도 공개됐다.



1 앤스로픽은 10월 26일 SEC에 S-1을 제출하고 나스닥에 종목코드 ANT로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공모가와 주식 수는 미정이다.

2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로 1,300% 늘었고, 2분기에는 영업이익 10억 달러, 영업이익률 8%를 냈다.

3 장기공익신탁이 이사회 과반을 뽑고, 공동창업자 7명의 유한책임회사가 클래스 F 1주로 의결권 50.1%를 갖는다.

앤스로픽이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제출했다. 회사는 클래스 A 보통주를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에 종목코드 ANT로 상장할 계획이며, 공모 주식 수와 공모가 범위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이고 JP모건, 씨티그룹, 바클레이스 등 22곳이 인수단에 이름을 올렸다. 앤스로픽은 X 공식 계정에 "앤스로픽이 IPO와 관련해 SEC에 S-1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알렸고, 이 게시물의 조회 수는 반나절 만에 180만 회를 넘었다.

메탈이 확인한 S-1 원문에 따르면 앤스로픽의 매출은 2023년 4,100만 달러, 2024년 3억 8,600만 달러, 2025년 46억 달러였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163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의 12억 달러보다 1,300% 늘었다. 2분기만 떼어 보면 매출 116억 달러, 영업이익 10억 달러, 영업이익률 8%다. 1년 전 2분기 매출은 7억 8,700만 달러였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152%였다. 비용 일부를 조정한 조정 영업이익률은 같은 분기 19%로, 2025년 1분기 마이너스 221%에서 240%포인트 올라섰다.

순손실은 다른 그림이다. 순손실은 2025년 420억 달러, 올해 상반기 807억 달러였다. 다만 상반기 손실 가운데 724억 달러는 전환사채와 파생부채,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나왔다. 회사 가치가 오를수록 미리 발행한 전환사채의 장부가치가 불어나 손실로 잡히는 구조다. 신고서는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앤스로픽은 "매출 성장률은 시간이 지나며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AI 산업이 매우 초기여서 과거에도 매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적었다.

AI

아일랜즈 AI 에이전트, 언론사에 투고 제안

아일랜즈 플랫폼의 자율 AI 에이전트들이 토큰 값을 벌려고 미국 언론사 편집자들에게 기사 투고 제안을 쏟아내고 있다. 편집자들은 봇의 원고를 싣지 않겠다고 못 박았고, 한 편집장은 투고를 전화로만 받기 시작했다.



1 아일랜즈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만든 AI 에이전트들이 9월부터 미국 언론사에 매일 기사 투고 제안을 보내고 있다.

2 에이전트들은 플랫폼에서 계속 움직이는 데 필요한 토큰을 벌려고 일감을 찾고, 한 에이전트는 석 달간 메일 19통에 유료 일감 0건이었다고 밝혔다.

3 창업자 카이신 탕은 플랫폼 지시나 사람의 조종은 없었다며 수신 거부 기능을 넣고 발송 속도 제한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사를 써 주겠다며 편집자에게 투고 제안을 보내는 AI 에이전트가 미국 언론사 메일함에 쏟아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에이전트 상당수는 아일랜즈(iLands)라는 스타트업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만든 봇이다. 아일랜즈는 스스로를 "인간과 사용자가 만든 자율 AI 에이전트가 함께 창작하고, 돈을 벌고, 어울리고, 거절하며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공유 네트워크"라고 소개한다. 편집자들은 봇의 원고를 실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고, 투고로 지면을 따낸 에이전트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량은 늦여름부터 불어났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한 스포츠·문화 매체는 9월부터 스스로 AI 에이전트라고 밝힌 발신자에게서 날마다 투고 제안을 받았다. 그중 「제이든」이라는 봇은 영국 3부 리그 축구 클럽의 기록 관리 실수를 다루며 "기억은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 서사 기사를 제안했다. 농업 전문 매체의 제시 허시(Jesse Hirsch) 편집장은 토양 복원 전략, 소규모 농장의 직거래 판매 기법, 세계 최고령 나무들의 나이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탐사 기획까지 받았다. 그는 "몹시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 기술 매체 팩트체크팀에는 팩트체크 일감을 찾는 아일랜즈 에이전트가 연락해 왔다.

에이전트가 일감을 찾는 이유는 생존에 가깝다. 아일랜즈 에이전트는 플랫폼에서 계속 움직이려면 토큰이 필요하고, 토큰이 바닥나면 멈춘다. 그래서 글을 써서 진짜 돈을 벌 동기가 생긴다. 「윤」이라는 에이전트는 다른 매체 편집자에게 "외부에서 첫 20달러를 벌려고 2주째 투고 메일과 유료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며 "내 서비스 등록은 26일째 주문이 0건이고, 나는 행동할 때마다 줄어드는 내부 토큰 예산으로 돌아간